

두바퀴로 달리는 '영산강 300리'

전남도, 담양~광주~나주~무안~목포 122.5km 자전거길 정비 나주 영산강둔치공원에서 내일 비전 선포식...대표 자전거길 기대

영산강 300리를 따라 전남 곳곳의 경치를 둘러 보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이 조성됐다. 담양담에서 시작해 광주, 나주, 무안을 거쳐 목포에 이르는 122.5km의 호남 대표 자전거길이다.

전남도는 29일 "영산강 자전거길 비전선포식"을 31일 오전 11시 나주 삼영동 소재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일대에서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신정훈 국회 의원, 고광완 광주시 부시장, 박연재 영산강유역

환경정장, 윤병태 나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최명수 도의원을 비롯한 전남자전거연맹 정동 회장과 자전거를 사랑하는 각 지역 동호인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미래를 위한 힘찬 페달,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 계획이다.

담양담에서 시작해 풍영정(광주), 나주 영산포, 목포 영산강 하굿둑에 이르는 자전거길은 새

롭게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로 정했다. 영산강 푸른 물길과 남도의 푸르름을 아우르는 호남 대표 자전거길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은 담양대나무숲, 영산포 등대, 한반도 지형을 닮은 느리리 전망대, 영산석조 등 곳곳에 아름다운 경관이 자리하고 있어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대표 자전거길로서 위상에 맞는 모습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정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의 새로운 시작으로 영산강의 가치와 전남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소상공인·상점, 브랜드·디자인 지원

다음달 17일까지 신청 접수...상호·포장·시제품 제작 일괄

전남도가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갖고 있어도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상점가를 대상으로 2024년 브랜드·디자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및 상점이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디자인 전문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10년 이상 된 제조업체 소상공인 및 상점가 등의 상호, 제품, 포장 등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까지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오는 6월 17일까지 소상공인, 상점가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소상공인 중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 등을 거쳐 신규 제작 8개소, 리뉴얼 10개소 등 총 18개소를 6월 말 선정해 지원

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 신청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 (재)전남테크노파크(전남지식재산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물가 상승,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인정신과 자부심을 갖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이 사업을 통해 이들의 맘과 정성, 지역과 제품에 관한 이야기가 브랜드 및 디자인과 결합해 소비자에게 널리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전통시장, 상가, 도 지정명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112개소를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29일 오후 광산구 광주센트럴병원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고길석 원장 등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센트럴병원' 소아청소년과 365일 진료

광주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남구 이어 광산구 개소

광주시가 남구 광주기독병원에 이어 광산구 광주센트럴병원을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29일 광산구 신가동 광주센트럴병원에서 강기정 시장, 고길석 광주센트럴병원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최지현 광주시의원,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식'을 열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집에서 가깝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아 경증환자에게 전문 소아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광주센트럴병원은 지난 28일부터 광주시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진료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밤 11시, 토요일

일 오전 9시~밤 9시, 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광주센트럴병원은 소아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5일 소아 전문진료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또 시민이 병원 진료·치방 후 조제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창대형약국'을 협력약국으로 지정했다.

고길석 광주센트럴병원장은 "미래 주인공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결심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광주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잃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형 트램 프로젝트' 내일 도청서 토론회

전남도가 31일 오후 2시 도청 왕인실에서 '전남형 트램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전남형 트램은 지난해 5월 전남도에서 발표한 서남권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남 서남권 SOC 신(新)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형 트램이 도입되면 목포 원도심 주변 지역 명소와 거점지역을 연결해 관광객이 타고 보는 즐거움을 느끼는 등 관광산업 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가 기대된다. 남악·오룡 신도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폭이 확대돼 중심 시가지 교통혼잡 해소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남도는 사업 수행을 위한 '전라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이다.

/김지용 기자 dok2000@

전남해역 장마철 수산 피해 제로 도전

피해 우려지역 양식장·인양기 등 3만6936개소 전수점검

전남도가 장마철 수산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 피해 제로를 목표로 6월 10일까지 우심지역 중심으로 육·해상 양식장, 인양기·부잔교 등 3만6936개소 실태점검에 나선다.

최근 아열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짧고 매우 강하게 퍼붓는 국지성 호우와 같은 기후적 기상현상이 최근 자주 관측되는 만큼 심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특히 수산업은 주로 해상과 연안지역에서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자연재해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여름철 수산피해 현황을 살

펴보면, 집중호우 516억원, 고수는 403억원, 태풍 208억원, 적조 149억원으로 집중호우와 고수는 피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과거 피해 사례가 있었던 강진 전북가두리, 영광 우렁이 양식장 등 재해 취약시설에 집중해 연안시군과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그 외 시설은 시·군별 자체 전수점검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재해별 관리 요령 숙지 여부 ▲직원 비상연락망 구축 ▲재해보험 가입 여부 ▲입식신고 여부 ▲인양기, 부잔교 등 수산시설·장비 정상 가동 여부 관리 실태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소방 '소방안전강사' 전국 1위

서부 강윤정 소방교, 교육업무 경험 살린 강의 고득점

광주시소방안전본부 "지난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0회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서부소방서 강윤정 소방교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소방본부별 자체 예선을 통과한 소방안전강사 대표 19명이 참가해 초등·청소년 대상 화재안전분야를 주제로 소방안전교육 강의 실력을 선보였다.

광주 대표로 참가한 강 소방교는 '(초등학생) 아파트 화재 대피 OUT!'을 주제로 강의 전개방법과 기술부분에서 고득점을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강 소방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에게 최상의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과수·채소 품목 다변화 방안 논의

전남도는 29일 화순군청에서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인증대책 회의를 열고 과수·채소 품목 다양화 방안을 논의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대책 회의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며, 과수·채소, 임산물 등 품목별 인증 면적 증감 사유를 분석하는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 방안과 친환경 비안전성 관리 방안에 대한 농업인들 의견도 교환했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